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7/16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 조사

2012년, 올해 2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예상(37%)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급기야 보육 예산을 감당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무상보육 지원 비율은 정부 60%, 지방비 40%다.

위기에 처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한국갤럽이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585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7월 9~10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4.1\%$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9%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72.8%
-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자의 70.6%도 선별 실시 원해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72.8%

한국갤럽이 지난 7월 9~10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85명에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 72.8%, '전 계층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22.0%로 응답돼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더 많았다.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 연령대별로도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가 많은 20~30대에서는 '전 계층 대상 실시'를 원하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30% 선에 달했다.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자의 70.6%도 선별 실시 원해

한편,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자들(71명)은 70.6%가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를 원해 실제 무상보육 수혜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선별 실시 필요성에 더 공감했다.

•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전 계층 대상으로 실시해야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모름/무응답
전체		585	22.0	72.8	5.2
성별	남성	290	25.9	69.6	4.5
	여성	295	18.2	75.9	5.9
연령별	19~29세	109	29.1	66.4	4.5
	30대	121	32.9	64.0	3.1
	40대	129	25.0	72.2	2.8
	50대	110	7.7	86.2	6.0
	60세 이상	117	14.2	75.8	9.9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	보육 중	71	25.8	70.6	3.6
	해당 없음	514	21.5	73.1	5.4

(질문) '2세 이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이 자원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2세 이하 무상보육을 전 계층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재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